이렇게 들었다 — 동포애

친족끼리 서로돕고 고락 함께해야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동포, 일본감옥에서 31년간 옥고를 치루고 석방된 재일교포 권희로씨. 그동안 우리 민족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우리 동포들의 고단한 삶들이 연일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한민족의 피를 나눈 우리동포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소외당하고 고통 당하면서도 오로지 한 민족의 자존심하나로 수십년 세월을 지켜온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경전에 나타난 동포와 민족 친지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배니라. 〈육방예경〉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때였다. 어느날 장신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안난다여! 밧지족은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력으로 붙잡아 가거나, 또는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저는 밧지 족은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력으로 붙잡아 가거나,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밧지족이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력으로 붙잡아 가거나,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난다여! 밧지족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니라." 〈대반열반경〉

▩세상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갓난애를 젖먹여 기르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다가 만약 병들견 양약(良藥)을 가려 먹여 병을 고쳐서 편안케 해준다. 여래대사(如來大師: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온갖 중생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 보기를 그 자식인 것같이 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없도록 마음을 쓰시지만, 중생이 악업을 지어 보(報)을 받을때는 교묘한 방편으로 구제하사 해탈케 하신다. 〈선교방편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흉경〉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보살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형제 처자 제몸같은 생각을 갖는다. 〈대반야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 같이 보아, 다 해탈(解脫)케 해야 한다. 〈태자쇄호경〉

민영교도소 남의 일 아니다

현성
중앙승가대 총장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모금을 하고, 정부에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모금액도 150억원에 이른다고 들었다. 천주교는 서울대교구에 설치된 교정사목위원회에서 매우 심도깊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영교도소가 생김으로써 종교단체의 재소자 교화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교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주였다. 명절 때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등 교도소 교화행정의 일부분을 할애받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용 및 재활교육, 종교활동 등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

일부에서는 종교 편향, 재소자 인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정종교에 교도소 운영을 맡긴다면 명백한 종교편향이 되겠지만, 조건을 갖추면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니 종교편향이라고 몰아붙일 수만은 없지 않은가. 또 민영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의 엄격한 심사,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감독을 강화하면 인권침해 우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타종교가 민영교도소 운영에 뛰어든다고 덩달아 나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재소자 포교에 민영교도소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비하는 일은 시급하다. 조계종 또는 종단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탁소리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허공장회'의 낙도포교

군대 병원 농촌 어촌 산촌 낙도…. 그동안 교계의 여력이 못미쳐 포교취약지구라고 여겨졌던 곳이다. 특히 오지라 불리는 낙도에 대한 포교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도지역에는 설사 불교가 남아있다고 해도 만신과 융합한 형태인 '무늬만 불교'인 기복불교가 전부였고 외로이 떠있는 섬주민들은 부처님께 예불드리고 싶어도 불교에 대해 알고싶고 공부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도 장소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타종교는 낙도에 교회당을 짓고 20여척의 전도선을 이용하여 남해안 서해안의 섬들을 헤집고 다니며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 놨다.

지난 초파일, 서해안의 백령도 종교편향사건이 대표적이다. 군법당과 태고종 인천종무원이 초파일행사로 연등을 달려고 하자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합세해 전기를 끊는등 고의적으로 방해한 사건은 도서지역의 종교편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의 90%이상이 기독교신자라 기독교공화국의 아성을 쌓은 백령도에서는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소수의 불자들은 그동안 이런 기고만장한 타종교인들때문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기독교쪽에는 각 교파마다 오지전도를 위한 조직이 여러개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불교계에도 낙도포교를 발원한 단체가 생겨 본격적으로 오지포교에 뛰어들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외진 곳을 찾아 섬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부처님법도 전하겠다는 '허공장회' 회원들은 특히 젊은 층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보살들이다.

요즘들어 서울 경기지역등 대도시와 그 주변은 사찰과 포교당이 넘쳐나 포교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다. 부처님께서는 전법의 길로 나서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가라 말씀하셨다. 2명이 함께가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제도하라는 뜻이었을게다.

낙도포교에 본격 뛰어든 허공장회를 뒤따르는 많은 단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권희로씨 영웅시 자제 국내 인권의식 반성을

요즘 31년만에 가석방돼 한국에 온 권희로씨 이야기로 한국사회가 떠들썩하다. 그는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당한 극심한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 현재 권씨를 영웅시하는 분위기도 없지않지만 권희로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화교나 또는 돈을 벌러온 동남아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이다. 우리나라의 화교들은 재산권과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등 박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스리랑카나 네팔, 필리핀 등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혹독하게 부리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협박까지 하고, 일을 하다 부상당해도 치료도 해주지 않고 일터에서 내쫓는 잔인한 행동들이 비일비재했다. 권희로씨를 영웅시하기에 앞서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인권의식을 갖고 소수민족을 대하는지 반성하고 인류애로써 그들과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경식(대전시 서구 둔산1동)

안방포교 발원 잊었나 불교TV 빨리 정상화를

신문 기사를 읽고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불교TV가 현재 노사간의 파업으로 신규 제작이 중단 되는 등 파행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교TV를 즐겨 보았는데 매일 옛날에 한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 사탕 하니까 사실 열심히 보지않는다. 빨리 불교TV가 정상화되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으면 한다.

이런 안타까움은 불자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젠 정말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 것이 아니라 종단과 불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후원회 행사 등 실질적으로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는 인터넷방송이다 뭐다 첨단을 향한 준비가 분주한데 천만불자를 자랑하는 불교계에서 불교TV 하나 살리지 못한 대서야 말이 되는가.

최준희(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달마도' 부적처럼 취급 사고파는 행태 지양해야

요즘 유명 일간지에는 '초능력자 OO스님 신비의 달마도'란 광고가 대문짝 만하게 나온다. OO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가 기의 방출과 수맥파차단의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만사형통이라는 등 광고를 하고있다. 또 절에 가는 길에 보면 달마도를 직접 그려 판매하고 있는 사람도 가끔 볼수 있다. 9년동안 면벽 참선하여 깨달음을 얻은 달마조사를 그린 그림이 요즘들어 수맥파나 차단시키고 삿된 기운이나 막는 부적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불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또 요즘 달마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달마도야말로 선화(禪畵)의 핵심으로 참선을 깊이 한 수행자가 그려야 그속에서 선기(禪機)가 흘러나와 보는 이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할 것이고 마음을 맑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불자들도 달마도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지녀서는 안될 것이다.

우연정(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합장하는 부처님'

설악산 바위가 영락없이 두손을 합장하고 눈을 지그시 감은 부처님의 모습이다. 김욱 作. 국립공원 사진전 입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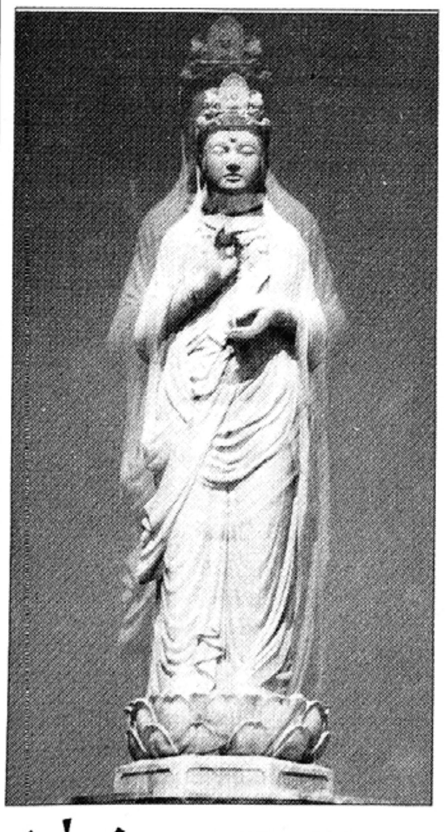
목·소·리

꽃제비들의 배고픔과 추위

김정님
'좋은벗들' 조사연구부장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길 모퉁이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아이들을 만났다. 너무 삐쩍 말라서 나무토막같은 아이들이었다. 옷은 곤색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몇 년째 입었는지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훤히 드러났다. 짝 잃은 단추구멍은 철사를 구부려 겨우 맞추었고 저고리는 때가 새까맣게 찌들고 어깨 솔기가 다 터져서 누런 속감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찬바람을 막기위해 목에 칭칭 감아올린 붉은색 마후라, 구멍뚫린 젖은 운동화. 그 얇고 작은 옷에 얼마나 추운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총총거리는 모습은 절로 한숨과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이 아이들은 다행히 우리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갖은 우리와 똑같은 민족의 정서였다.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어도 그냥 가는 법은 없었다.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청소라도 했고, 작은 돈이라도 생기면 같이 다니는 친구와 나누며, 배가 고파도 음식 앞에서 내것만 챙기지 않고 옆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아이들이었다. 비록 남의 나라에 와서 구걸하는 신세였지만 부끄러움과 예의를 아는 우리의 형제들임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참 맑았다. 배고픔에 지쳐 힘없이 축 쳐진 어깨를 조금만 다독여주면 금새 환한 미소를 보이며 '고맙습니다'를 연발한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미소를 되찾아 주어야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국에 넘어와 잠자리도 해결하지 못하고 구걸하며 떠돌아 다니고 있다. 우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자리를 해결하는 일이다. 우리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진다면 이 아이들이 잠자리를 해결하고, 구걸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일부 인연있는 분만이 호신불로 소장하였던

신비한 氣를 방사하는 "해수觀音" 후광 사진이 佛子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 왔습니다.

"觀音" 후광(광배)사진은 고향의 부모님을 나 대신 지켜 주고 정신적 평화를 주는 불자 가정의 최고의 추석 효도선물!!

평소 은혜를 입은 분에게 드리는 순수한 마음의 선물!! 다정한 이웃, 친척간의 소박한 선물로 적격입니다.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가정에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觀音

사진을 구입하시는 가정은 連庵聖師께서 신통한 영능력으로 자녀의 전생을 보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제시해 드립니다. 특히 고시 및 입시 수험생에게 권장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매일 새벽 4시 ~ 6시 觀自在如來造化法(관자재여래법)으로 질병과 삼재 팔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수익금은 觀音氣禪院 건립자금으로 사용됩니다.

해수관음 후광사진 주문방법
조흥은행 611-04-088674 관음기공연구회
서 울 02)3432-0457, 4578~9
부산지원 051)557-0993
인터넷 홈페이지 : www.cocomall.com/myst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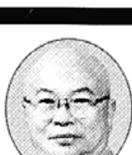
氣가 방사되는 영롱한 觀音후광(광배)
촬영인 : 靈能力者 連庵聖師

98년 8월 9일 새벽 4시경 觀音이 시현, 우렁찬 목소리로 "나를 세상에 알려라"는 계시에 따라 중생에게 실질적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영출한 영롱한 무량광의 "觀音"을 세상에 보급합니다.

※제품 : 알루미늄 액자 (8"×10") 88,000원
합 성 목 액자 (20"×24") 330,000원

신개발품

시·연·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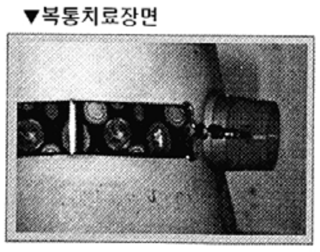


김시연스님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 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랑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숙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